

유노쓰 사이넨지 절

험준한 산 중턱에 자리한 유노쓰 사이넨지 절은 이 사찰을 짓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음을 짐작케 합니다. 과거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했던 이 지대에는 원래 자그마한 선종(禪宗) 사찰이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점점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. 그후 1561년 당시 이와미 은광과 그 주변 일대를 지배했던 모리 씨족이 정토종(淨土宗) 신도들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. 신도들은 엔큐라는 승려를 중심으로 모리 씨족 휘하에 있던 장인들의 도움을 구해 사찰을 세울 만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아득할 정도로 오랜 시간에 걸쳐 깎아 나갔습니다.

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 작업에는 부수적인 목적으로 유노쓰부터 모리 씨족이 주로 은 수송에 이용했던 오키도마리항까지의 길을 정비하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 사이넨지 절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행객들의 피난처로도 알려져 있어서 사이넨지 절 바로 앞까지도 이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현재도 이 길은 걸을 수 있지만 그 장소가 약간 옮겨져 1879년에 재건된 본당을 마주하고 있는 폐쇄된 산문(사찰로 들어가는 문)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. 본당 뒤 산 중턱에 자리한 묘지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서 가장 오래된 묘석은 17세기 전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.